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신문, 잡지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명칭에 관한 연구

김 은 정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박사

A Study on the Naturalized Costume Terminologies Appearing in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from the Age of Enlightenment to the Time of Independence(1876-1945)

Eun-Jung Kim

Doctor of Science, Dept. of Living Culture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투고일: 2009. 9. 22, 심사(수정)일: 2009. 10. 29, 게재확정일: 2009. 11. 5)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 of dress and its ornament introduced in terms of naturalized words on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published from the age of enlightenment to the Independence(1876-1945). First of all, naturalized words in that period(1876-1945) can be classified into words originated in Japanese, words originated in western countries and borrowed words came from Japan. Borrowed words which came from Japan are almost related to Japan's traditional dress like *Gudu*, *Gabang*, *Kimono*, *Nemaki*, *Ebijahagama*, *Hagama*, *Sirusibanden*, *Doriachi*, *Dombi*, *Sarumada*, *Sseumeeri*, *Doriachi*, and *Mombbe*. Borrowed words originated in western countries are like *Frock coat*, *Bonnet*, *Necktie*, *Chapeau*, *Scotch*, *Homespun*, *Chamois*, *Skirt*, *Spring Coat*, *Ribbon*, *Silk hat*, *Panama hat*, *Handbag*, *Pajama*, *Shawl*, *Apron*, *Cuffs*, *Pocket*, *Handkerchief*, *Morning coat*, *Combination-one piece*, *Rain Coat*, *Burberry*, and *Permanent*, etc. Borrowed words came from Japan is *Lasa[raxa]*, *jokki[jaket]*, *Les[lace]*, *Veludo[velvet]*, *Bbanss[pants]*, *Oba[overcoat]*, *Melias[medias]*, *Shass[shirt]*, *Manto[manteau]*, and *Sebiro[civil clothes]*. As we can see from the result of research, borrowed words from the age of enlightenment to the Independence was because of its special social situation, Japanese imperialism, they are divided into real western words and words came from Japan or Japanese. In terms of items, a lot of words related to men's suit and women's dress, accessory, etc. It confirms that men's dress was westernized in the whole part compared to partially westernized women's one. A lot of words used at that period are now adapted to Korean language and became the foundation of words used in the current dress and its ornament area.

Key words: age of enlightenment(개화기), naturalized words(외래어), clothing terms(의복명칭), newspaper(신문), magazine(잡지).

I. 서론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개화기(1876-1910)¹⁾와 개화이후 광복이전(1910-1945)까지는 전통 문화와 서구문화가 갈등을 겪은 과도기로서 복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남자복식은 의복제도의 개혁에 의한 관복의 변천과 유학을 통해 신문을 접한 지식인들에 의한 양복착용에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여자복식은 한복의 개량과 양장의 착용에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개화기는 조선시대까지 이어 오던 전통 복식이 변화되거나 서양 복식의 착용이 확대 되던 시기로서 조선왕조실록, 사진, 엽서, 회화, 잡지, 신문 등을 통해 당시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복식사 분야에서는 개화기 복식의 변화와 요인²⁾, 개화기 양복의 도입과 그 사회적 배경³⁾, 남성복식의 변화·남자의 관복 변화⁴⁾,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화⁵⁾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국어학 분야에서는 신문, 잡지, 신소설에 기록된 어휘들을 발췌하고, 이들을 고유어, 한자어, 신용어와 차용어로 분류하여 개화기 어휘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⁶⁾, 이들 자료 중에는 복식과 관련된 명칭들도 포함되어 있어 어휘를 통해 당시의 복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개화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유입된 외래복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각 품목들의 어원이나 용도 등에 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복식이 서구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개화기와 광복이전 복식의 특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시기에 나타난 외래적 요소를 통해 개화기와 개화기이후 광복이전까지의 복식의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1876년 개화기부터 해방이 된 1945년까지로서, 이시기의 복식명칭 중에서 외래어 복식명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1876년부터 1945년의 변화되는 상황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신문·잡지의 기사와 광고

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명칭들을 분류하고, 명칭이 유입된 시기와 쓰임새, 품목과 사용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신문·잡지에 기록된 복식관련 명칭

본 장에서는 1896년부터 1945년까지의 신문과 잡지를 한국잡지정보관⁷⁾과 신문박물관⁸⁾ 시기의 구분에 근거하여 4시기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의 구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된 잡지와 신문의 모습을 반영하여 분류한 것으로, 복식명칭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1기는 1876년에서 1910년, 제 2기는 1910년에서 1919년, 제 3기는 1919년에서 1937년, 제 4기는 1937년에서 1945년으로 분류하고, 각 시기에서 확인된 외래어⁹⁾ 복식명칭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제1기(1876년-1910년)의 복식명칭

제1기는 신문, 잡지의 태동기로서 계몽적인 성격을 띤 신문, 잡지 자료들이 많았다. 잡지에는 『친목회 회보』,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强會月報)』, 『서우학회월보(西友學會月報)』, 『공수학보(共修學報)』,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 『호남학보(湖南學報)』, 『기호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교남교육회잡지(嶠南教育會雜誌)』, 『자선부인회잡지』, 『소년(少年)』이 있고, 신문에는 『한성순보(1883-84)』, 『한성주보(1886-88)』, 『독립신문(1896-99)』, 『매일신문(1898-9)』, 『태국신문(1898-1910)』, 『皇城新聞(1898-1910)』, 『대한민일신보(1904-10)』, 『공립신보(1905-9)』, 『만세보(1906-7)』, 『국민신보(1906-1910)』 등이 있다. 이시기의 신문과 잡지는 대부분이 한자이거나,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한글로 표기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또한 복식관련 명칭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표 1>은 제 1기의 신문 잡지에 기록된 복식명칭 중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명칭을 '조선어',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된 명칭을 '신조어', 서양에서부터 유래한 '서

<표 1> 제1기 신문, 잡지의 복식 명칭

조선어	신조어	서구어계 외래어	일본어계 외래어	일본에서 유래한 서구어계 외래어
갓, 신, 옷, 무명, 베, 모시 독립신문, 1896. 4. 21.	漂洋布, 羽紗, 洋紗 한성주보, 1886. 2. 22.	푸로코트[frock coat] 대한매일신보, 1909. 4. 15.	구두[くつ] 대한매일신보, 1907. 12. 5.	라사(羅紗) [ラシヤ←raxa (포르투갈어)] 대한매일신보, 1906. 1. 10.
두루마기, 나무신, 집신, 가족 독립신문, 1896. 4. 25.	洋木, 洋紗, 洋緞 한성주보, 1886. 7. 5.			족기[チョッキ← jaket(영어)] 황성신문, 1902. 11. 7.
상투, 망건 독립신문, 1896. 5. 26.	서양목 독립신문, 1896. 4. 21.			
적오리, 갈미치마, 당혜, 나무신 독립신문, 1896. 6. 4.	洋服, 洋鞋 독립신문, 1896. 4. 25.			
면주 독립신문, 1896. 6. 9.	양모자 독립신문, 1898. 9. 3.			
면스, 토슈 독립신문, 1898. 9. 3.	中山帽子, 中折帽子, 聰帽子 대한매일신보, 1909. 6. 5.			
	洋襪 대한매일신보, 1909. 7. 2.			

구어계 외래어', 일본어에서 유래한 '일본어계 외래어', '일본에서 유래한 서구어계 외래어'로 나누어 분류한 것이다. 이시기의 외래어 복식명칭은 '푸로코트, 구두, 라사, 족기'등으로 당시의 복식명칭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기의 사진 자료에는 서양 복식을 착용한 남녀의 모습, 특히 남자들의 모습이 종종 확인되는데, 이러한 자료들에 비하면 외래어 복식명칭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는 이시기의 복식 명칭 중에 양(洋)과 결합된 '양복, 양혜, 양말, 양모자' 등의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양(洋)과 결합된 명칭들은 외래에서 유입된 옷, 신, 쓰개에 대응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복의 경우 『고종실록』 12년(1875년) 7월 9일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양복'이란 명칭의 사용이 개항전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31년(1884년 7월 9일)에는 외국 국명과 지명, 인명 등을 국문으로 표

기하기로 한 법령이 공표되었는데¹⁰⁾, 이것을 보아도 개항이후 외래 물품과 함께 외래어도 상당히 많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복식에 있어서는 많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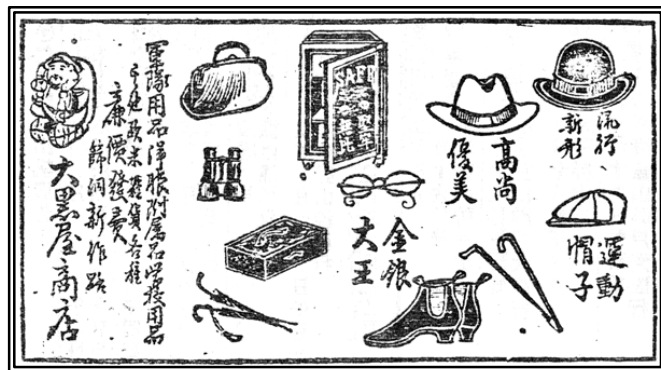
제1기 <그림 1>~<그림 4>¹¹⁾에 있는 복식관련 광고를 보면, 1886년 한성주보에 실린 최초의 신문광고인 세창양행 광고에서 서양 단추, 각색 서양 직물, 의복 염색약 등이 확인된다. 1900년대 신문광고 중 복식관련 광고들은 서양식 모자나 양복, 구두 등의 남자 복식 관련 광고들이 많았고 따라서 외래어 명칭들도 남자 복식과 관련된 명칭들이었다.

2. 제2기(1910년-1919년)의 복식명칭

제2기는 1910년부터 1919년으로 한일병합이후 3·1운동 때까지이다. 이시기는 일제의 총독통치에 의한 무단정치시대(武斷政治時代)였으며, 언론의 암흑기였



〈그림 1〉 양목, 양사 광고
한성주보, 1886. 7. 5.



〈그림 2〉 대흑옥(大黑屋)상점에서 판매하는 잡화광고
황성신문, 1905. 1. 6.



〈그림 3〉 육군장교복, 모자, 양복을 판다는 원등(遠藤) 양복점 광고
황성신문, 1905. 1. 31.



〈그림 4〉 양복점 광고
만세보, 1907. 1. 24.

다. 합방이전까지 활발하게 발행되었던 여러 종류의 일간지들은 모두 폐간되었고,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략한 매일신보만이 유일한 한국어 신문으로 남아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일반 종합잡지의 발행이 어려워 기 때문에 종교잡지와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발행한

잡지가 주를 이루었다.¹²⁾ 종교지에는 『시조월보(時兆月報)』, 『시천교월보(侍天教月報)』, 『조선불교월보(朝鮮佛敎月報)』, 『해동불교(海東佛敎)』, 『경학원잡지(經學院雜誌)』, 『구악종보(龜岳宗報)』, 『불교진흥회월보(佛敎振興會月報)』, 『시천교중회보(侍天教宗會報)』, 『신

<표 2> 제2기 신문, 잡지의 복식 명칭

조선어	신조어	서구어계 외래어	일본어계 외래어	일본에서 유래한 서구어계 외래어
靴, 毛布, 毛織物, 綢緞布 대한매일신보, 1910. 9. 6.	洋服 대한매일신보, 1910. 9. 6.	코-트[Coat], 매일신보, 1914. 6. 3/ 1915. 10. 3.	네마기[ね-まき; 일본 식으로 지은 자리옷] 청춘 2, 1914, p. 112.	인바네스[임바네스, 인 바네스←Inverness] 매일신보, 1914. 6. 3/ 1915. 10. 3.
자리옷 청춘 2, 1914, p. 112.	駿帽子, 총帽子 대한매일신보, 1910. 9. 4.	스카트[Skirt], 셀크햇트[Silk Hat] 청춘 1, 1914, p. 67, 114.	기모노[きもの; 衣服] 청춘 7, 1915, p. 75.	세비로[せびろ← civil clothes] 청춘 3, 1914, p. 85.
두루마기 청춘 11, 1917, p. 5.	女鞋: 緞紗乾鞋 [半宮혜 妓혜 半妓혜], 革乾혜, 半油혜, 鬆堂혜 男鞋: 黑革乾鞋 [馬上值, 半馬上值, 女態鞋, 半女態鞋, 吏輩值(普通鞋), 半吏輩值, 於述于其], 白革乾鞋, 泥鞋, 羽緞鞋, 泰絲鞋, 郎泰絲鞋, 兒半油鞋, 대한매일신보, 1910. 9. 27.	파나마(帽子) [Panama Hat] 매일신보, 1914. 6. 27.	에비자하가마 [えび-ちゃばかま, 日本女學生의 外出衣裳] 소년 10, 1910, p. 60.	만또[도] [マント←Mantle] 매일신보, 1915. 10. 3/ 청춘 11, 1917, p. 117.
宮혜, 堂혜, 雲鞋 대한매일신보, 1910. 9. 27.	洋靴 대한매일신보, 1910. 9. 27/ 1911. 3. 12.	리본[Ribbon] 청춘 4, 1915, p. 26.	하가마[はかま] (禮式 正式에 입는옷. 청춘 2, 1914, p. 115.	팬츠[パンツ←Pants] 매일신보, 1926. 7. 16.
布, 亭, 木, 紬, 緞, 綿子, 毛織 대한매일신보, 1910. 10. 2.	中折, 中山帽子 대한매일신보, 1910. 9. 27. 중절모 매일신보, 1913. 11. 27.	한케치프[히ト 가지후, Handkerchief] 1915/ 매일신보, 1915. 9. 30.	시루시반덴 [シルシバンデン; 日本商店人들의 입단 店名記入한 上衣 일홈] 소년 10, 1910, p. 55.	족기 [チョッキ←jaket] 매일신보, 1912. 12. 26.
夏帽子 대한매일신보, 1911. 4. 30.	變形靴 매일신보, 1912. 12. 21.	모닝코우트 [Morning coat], 본넷토[Bonnet] 청춘 8, 1917, p. 82.	가방[カバン] 매일신보, 1913. 10. 14.	메리야스샤쓰[メリヤ 스シャツ← meias: 포르투갈어+shirt] 매일신보, 1915. 11. 2.
남바위 매일신보, 1912. 12. 21.	혁신화 매일신보, 1913. 1. 10.	넥타이[Necktie], 사포[Chapeau:군모] 청춘 11, 1917, p. 5, 6.	도리아치 [鳥打(とり-うち)] 매일신보, 1913. 11. 27.	메리야스 [メリヤス←meias] 매일신보, 1915. 9. 30.
조바위 매일신보, 1915. 10. 28.	편리화 매일신보, 1913. 2. 22.		쓰메에리[ツメエリ] 청춘 3, 1914, p. 85.	레쓰[レース←Lace] 청춘 4, 1915, p. 26.
毛衣 매일신보, 1913. 12. 2.	風懂耳 매일신보, 1913. 12. 2. 딕고자 매일신보, 1917. 4. 8.			
笠子 매일신보, 1917. 4. 5.	경제화, 단화 변형화 매일신보, 1915. 3. 7/ 1919. 8. 29.			
毛背子, 毛吐手 매일신보, 1918. 1. 17.	洋襪 매일신보, 1917. 2. 14. 맥고모, 一交字帽, 青年帽 매일신보, 1917. 4. 3.			

학세계(神學世界), 『조선불교계(朝鮮佛敎界)], 『교회지남(敎會指南)], 『조선정교보(朝鮮正敎報)], 『조선불교총보(朝鮮佛敎叢報)], 『기독교청년(基督教靑年)], 『성경잡지(聖經雜誌)], 『신학지남(神學指南)], 『유심(惟心)]과 아동지인 『아이들 보이], 『새별], 『붉은 저고리], 문예지인 『학지광(學之光)], 『조선문예(朝鮮文藝)], 『태서문예신보(泰西文藝新報)], 『삼광(三光)], 『창조(創造)], 종합지인 『청춘(靑春)], 『공도(公道)], 『근대사조(近代思潮)]가 있으며, 신문에는 『시사신문

(1910-21)], 『매일신보(1910.8-1945)]가 있다. 이 시기의 자료들은 종교지가 대부분으로 복식과 관련된 명칭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춘], <그림 5>13), <그림 6>14), <그림 7>15), <그림 8>16), <그림 9>17), <그림 10>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일신보』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1910년대의 신문광고를 보면¹⁹⁾, 한일합방이 되어 광고에도 부쩍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상품회사도 일본인 회사가 많았으며, 광고도 일본에서 만든



<그림 5> 만도 광고
매일신보, 1912. 11. 27.



<그림 6> 편리화, 가방 광고
매일신보, 1913. 1. 24.



<그림 7> 개량신화, 가방
매일신보,
1912. 12. 21.



<그림 8> 조끼, 풍동이, 양화 광고
매일신보, 1916. 11. 26.



<그림 9> 스웨-다-[스웨터], 메리야스 광고
매일신보, 1919. 10. 12.



〈그림 10〉 좌측부터 鳥打(도리아치), 青年帽, 一交字帽, 파나마 모자광고
매일신보, 1917. 4. 3.

것이 대부분이었다. 제 2기의 복식과 관련된 명칭들은 모자, 신발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한자와 한글 명칭이 혼합되고 점차 한글로 표기된 명칭이 많아지며 외래어 명칭들도 증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외래어 명칭에는 '코-트, 인바네스, 스카트, 쉘크헛트, 리쎌, 한케치프[호ㅏ가지후], 모닝코우트, 본넛토, 넥타이, 사포, 파나마' 등의 서구어계 외래어명칭, '네마기, 기모노, 에비자하가마, 히가마, 시루시반덴, 쓰메에리, 가방, 도리아치(모자)' 등의 일본어계 외래어와 '세비로, 만포[도], 뽀스, 족기²⁰⁾, 메리야스샤쓰, 메리야스' 등 일본을 거쳐 유입된 서구어계 외래어명칭이 있다.

이상 제 2기의 외래어 명칭은 제 1기에 비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외래어 명칭들이 어느 정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단,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어사전』²¹⁾에는 '갓, 갓모, 갓모즈, 갓모테, 고, 고의, 고깔, 곤룡포, 곤면, 곤복, 과두(裹肚), 관, 광목, 남바위, 너울, 도포, 도롱이, 모말(毛襪), 모사(毛紗), 모의(毛衣), 모시, 모라, 목화, 오목다리, 적삼, 치마, 저고리, 잠옷, 만선두리, 망건' 등의 조선어 명칭이 많이 기록된 반면, 제 1기와 제 2기에 보인 외래어 명칭 들 중 '구두, 라사'만이 확인되고 '양말, 양목, 양복, 양사, 양산, 양전, 양혜, 양용²²⁾' 등 洋과 결합한 명칭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각 품목에 대한 고유명사 대신에 주로 洋과 결합한 신조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제3기(1919년-1937년)의 복식명칭

제3기는 1919년부터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

기 전 시기이다. 1919년 3월 1일 민족독립의 함성이 후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인들에게도 신문지법에 의한 신문, 잡지의 발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²³⁾ 이 시기에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주의 또는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성격의 잡지와 신문학을 발달시킨 문예지, 각 분야에 걸친 전문지, 학술지 및 여성지가 발간되었다.²⁴⁾ 이 시기의 잡지는 한국 잡지문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민족주의 내지는 독립사상을 고취한 『별건곤』, 『공제(公濟)』, 『아성(我聲)』, 『계명(啓明)』, 『신천지(新天地)』, 『신생활(新生活)』, 『동명(東明)』, 『조선지광(朝鮮之光)』, 『동광(東光)』, 『현대평론(現代評論)』 등이 있고, 『신가정(新家庭)』, 『여자계(女子界)』, 『신여성(新女性)』, 『활부녀(活婦女)』, 『부녀세계(婦女世界)』, 『현대부인(現代婦人)』, 『여성지우(女性之友)』, 『근우(槿友)』, 『여인(女人)』 등의 여성지가 있었다. 신문에는 『매일신보』가 꾸준히 발간되었고, 『조선일보(1920.3.5)』, 『동아일보(1920.4.1)』, 『시사신문(1920.4.1: 재창간)』의 3개의 민간신문이 창간되었다.

1920년대 광고는 〈그림 11〉²⁵⁾, 그림(12-16)²⁶⁾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광고도 다양해졌다. 여성 및 복식과 관련된 광고는 화장품, 모자, 신, 양복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라부 백분, 피부미백제 등 화장품과 비누 광고는 소비자인 여자를 겨냥해 여자 모델을 사용했다. 1923년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등장한 별표 고무신, 동아목, 박가분 등 광고는 국산품 애용을 권장하는 문안과 함께 민족 정서를 반영하려는 투박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했다. 1930년대 신문광고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더욱 다양하고 과감하게 사용되어 메시지보다는 이미지가 강조되는 광고로 나타났으며, 양복, 신발 광고가 주를 이

〈표 3〉 제3기 신문, 잡지의 복식 명칭

조선어	신조어	서구어계 외래어	일본어계 외래어	일본에서 유래한 서구어계 외래어
저고리, 적삼, 단발, 털저구리, 자리옷 신가정, 1933. 1. 1, pp. 138-143.	합복 매일신보, 1924. 3. 19.	스콧치[Scotch: 영국 스코틀랜드 남쪽 지방에서 나는 면양의 털. 또는 그것을 재료로 한 털실이나 모직물], 홈스팡[Homespun], 세무[chamois] 매일신보, 1924. 3. 19.	돛비[とんび=인바네스← invernass] 매일신보, 1924. 3. 19.	오버[オーバー←Overcoat] 매일신보, 1921. 3. 14.
속바지, 멜빵 신가정, 1936. 9. 1, p. 118, 122.	洋裝 매일신보, 1926. 5. 24/ 1927. 10. 5.	쓰푸링 코-트 [Spring Coat] 매일신보, 1926. 4. 1.	사루마다[さる-また:남성용펜티] 조선중앙일보, 1933. 4. 3.	만도[マント←Mantle] 매일신보, 1923. 2. 3.
바지 매일신보, 1938. 11. 4.	양복 매일신보, 1938. 11. 4.	포켓[Pocket] 매일신보, 1931. 6. 12.	쓰메에리[つめえり:깃의 높이가 4cm쯤 되게 하여, 목을 돌려 바깥 여미게 지은 양복] 매일신보, 1933. 7. 5.	웨터[セーター←Sweater], 샤쓰[シャツ←Shirt] 중외일보, 1930. 2. 21.
광목 동아일보, 1933. 4. 9.	고무[ゴム]靴 매일신보, 1920. 4. 26.	핸드백[Handbag] 신가정, 1933. 1. 1, p. 124.		와이셔츠[ワイシャツ←White shirt] 매일신보, 1930. 11. 23.
	양산 조선중앙일보, 1933. 4. 10.	숄[Shawl] 조선중앙일보, 1933. 4. 10.		레-스[レース←Lace] 신가정, 1933. 1. 1, p. 124.
		파자마[Pajama], 에푸론[Apron], 카우스[Cuffs] 신가정, 1933. 11. 1, p. 116, 117.		비로드 [ビロード←Velvet] 조선중앙일보, 1935. 2. 18.
		넥타이[Necktie] 신가정, 1934. 4. 1, p. 136.		
		에푸롱[Apron], 콤비네숀-원피스[Combination-one piece] 신가정, 1935. 12. 1, p. 84, 85.		
		레인코트[Rain Coat], 마바리[Burberry]조선중앙일보, 1936. 4. 12.		
		코트[Coat] 매일신보, 1938. 11. 4.		

루었다.²⁷⁾

이시기의 외래어명칭은 〈표 3〉과 같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다. 서구어계 외래어 명칭으로는 ‘스콧치, 홈스팡, 세무’ 등의 양복 소재와 관련된 명칭과 ‘쓰푸링 코-트, 핸드백, 숄, 파자마, 에푸론, 카우스, 에푸롱, 콤비네숀-원피스, 레인코트,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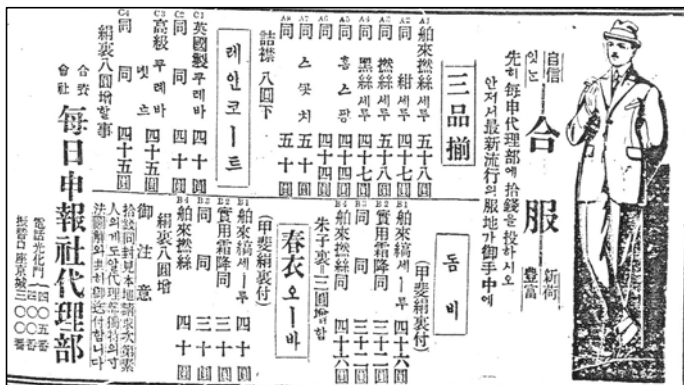
바리’ 등이 추가되었고,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서구어계 외래어는 ‘웨터, 레-스, 비로드’, 일본어계 외래어는 ‘돛비, 사루마다, 쓰메에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외 신조어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고무’와 신 또는 靴의 합성어인 고무신 또는 고무화가 확인된다. 여기서 고무는 네덜란드어의 ‘gom’에서 유래되어 일



<그림 11> 일본어로 광고된 오바, 만도, 돐비
매일신보, 1921. 2. 11.



<그림 12> 양복광고
동아일보, 1921. 11. 3.



<그림 13> 합복, 레인코트, 돐비, 오-바 광고
매일신보, 1924. 3. 19.



<그림 14> 치마, 저고리
동아일보, 1924. 6. 15.

분어 '고름'가 되었고, 이 말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28), 외래어와 우리말이 합성된 명칭이다.

4. 제4기(1937년-1945년)의 복식명칭

제4기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로 중·일 전쟁부터 해방 때까지이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1945년 8·15광복을 맞을 때까지 잡지나 신문 등의 언론은 '암흑기(暗黒期)'였다. 민족사상과 독립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말과 글까지 빼앗아 '황

국신민화(皇國臣民化)'의 길을 치닫기 시작한 이 시기에는 국내의 잡지조차도 거의가 일본인에 의하여 일본어로 발행되고 한글로 된 잡지도 거의가 친일적인 색채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29) 주요 잡지에는 『문장(1939)』, 『인문평론(1939)』, 『태양(1940)』, 『청춘(1941)』, 『중앙소년(1939)』, 『대동아(1942)』, 『문학(1945)』등이 있었고, 신문은 『매일신보(1910.8-1945)』, 『동아일보(1920-1940)』, 『조선일보(1920-1940)』가 있었다. <그림 18>30)은 조선일보가 폐간될 때의 편집국



〈그림 15〉 정자옥 양복점의 쓰푸링 코트 광고
매일신보, 1926. 4. 1.



〈그림 16〉 거복선표 고무신 광고
매일신보, 1930. 9. 17.

〈그림 17〉 양복과 혁화 광고
조선중앙일보, 1935. 11. 19.



〈그림 18〉 폐간시의 조선일보 편집국
조선일보, 1940. 8. 10.



〈그림 19〉 파마넨트
조광, 1939. 12.



〈그림 20〉 국민복
매일신보, 1940. 11. 2.

〈표 4〉 제4기 신문, 잡지의 복식 명칭

조선어	신조어	서구어계 외래어	일본어계 외래어	일본에서 유래한 서구어계 외래어
스란치마 매일신보, 1942. 7. 4.	양복 매일신보, 1938. 11. 4.	코트[Coat] 매일신보, 1938. 11. 4.	몸빼[もんぺ: 일본 한국에 보급된 여자바지] 매일신보, 1942. 7. 4.	팬츠[パンツ←Pants] 매일신보, 1938. 10. 7.
옷고름, 단추 매일신보, 1943. 8. 19.	국민복: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에 널리 보급되었던, 군복 비슷한 남자의 복장으로 한국에서도 입혀짐 매일신보, 1940. 11. 2/ 1944. 4. 23. 통치마 매일신보, 1943. 8. 19.	파마넨트[Permanent] 조광, 1939. 12.		오바[オーバー ←Overcoat] 조선일보, 1940. 4. 12.

의 모습인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서양복의 차림을 하고 있어 이시기 남자 복식이 어느 정도 서구화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제4기의 복식관련 외래어 명칭은 <표 4>이며, <그림 19>³¹⁾에서 확인되는 머리모양과 관련된 '파마넨트'가 있고, '코트' 등의 서구어계 외래어 명칭과 일본어계 외래어 명칭인 '몸빼', 이전에 있던 '빤스' 등이 확인된다. 이처럼 복식관련 명칭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1940년대 이후 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광고의 수요가 줄어든 것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 <그림 20>³²⁾의 국민복은 일본에서 입혀졌던 의복으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도 입혀졌는데, 한자를 그대로 차용하여 한자의 음으로 사용된 명칭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조어로 분류하였다.

Ⅲ.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외래어 복식 명칭의 특징

본 장에서는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외래어 복식명칭의 어원과 쓰임새, 품목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복식의 특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어원과 쓰임새로 본 특징

시기와 어원을 중심으로 분류한 개화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외래어 복식 명칭들은 <표 5>와 같고, 이는 각 시기에만 보이는 명칭들을 정리한 것이다.

제1기는 외래어 명칭의 수가 많지 않았고, 서구어계 외래어, 일본어계외래어, 일본에서 유래한 서구어계 외래어 명칭들의 비중이 서로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제2기는 외래어 복식명칭이 급증한 시기로, 서구어계, 일본어계, 일본에서 유입된 서구어계 외래어 명칭들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제3기는 일본어계 외래어 보다는 서구어계 혹은 일본에서 유입된 서구어계 외래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제4기는 정치적인 혼란기 때문인지 외래어의 유입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신문 잡지에서 확인된 서구어계 외래어와 일본에서 유래된 서구어계 외래어는 '라사(らしゃ← rasa: 포르투갈어)³³⁾, 메리야스(メリヤスシヤス← meias: 포르투갈어← medias: 스페인어)³⁴⁾와 같이 포르투갈어를 받아들여 일본어화 된 명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어에서 유래한 명칭이었다. 이중 메리야스는 저지 등을 포함하여 편물용 기계로 짠 니트지의 총칭으로 내의, 장갑, 양말 따위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³⁵⁾, 현재는 대중들에게 상의에 해당하는 속옷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그 의미가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구어계 외래어는 '푸로코트, 인바네스, 세비로' 등과 같이 당시 유행한 명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표 5> 시기별 외래어 복식명칭의 비교

외래어 구분 시기	서구어계 외래어	일본어계 외래어	일본에서 유래한 서구 외래어
제 1기 (1876년-1910년)	푸로코트	구두	라사, 족기
제 2기 (1910년-1919년)	코-트, 스카트, 켈크헛트, 파나마(모), 리쎌, 한케치프, 모닝코우트, 본넛토, 넥타이, 사포	네마기, 기모노, 에비자하가마, 하가마, 시루시반덴, 가방, 도리아치, 쓰메에리	인바네스, 세비로, 만또, 빤쓰, 족기, 메리야스샤쓰, 메리야스, 레쓰
제 3기 (1919년-1937년)	스돗치, 홈스팡, 세무, 쓰푸링 코-트, 포켓, 핸드백, 솔 파자마, 에푸론, 카우스, 콤비네숀-원피스, 레인코트, 바바리	돔비, 사루마다	오버, 웨터, 와이셔츠, 레-스, 비로드
제 4기 (1937년-1945년)		몸빼	

있다.

일본어계 외래어는 대부분이 일본의 전통복장이거나 개화기 당시 일본에서 유행한 일본 의복명칭들로서, 이중 '네마기, 기모노, 에비자하가마, 하가마, 시루시반넨, 도리아치, 쓰메에리, 돛비, 사루마다' 등의 명칭은 개화기이후 혹은 광복이후에는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계 외래어 중 '구두, 가방, 몸뻘'은 우리 복식에 동화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데, 이중 가방(カバン)은 『조선어사전(1946)』에서 보면 '가죽이나 쓰꾸들로 싸서 만든 상자, 여행할 때에 가지고 다이는 것³⁶⁾' 이라고 하여, 당시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이었으나 현재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용구'의 의미로 그 의미가 보편화되고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2. 품목과 사용자로 본 특징

품목과 사용자로 분류한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외래어 복식명칭들은 <표 6>과 같다.

성별을 중심으로 보면 남자에 해당되는 복식명칭이 여성에 비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품목으로 보면 남자 쓰개의 명칭이 여성에 비해 많았고, '푸로코트, 코-트, 모닝코우트, 쓰푸링 코-트, 레인코트, 바바리, 오버, 인바네스, 돛비, 콤비네숀-원피스, 쓰메에리, 세비로, 만또, 뽀스, 족구, 메리아스샤쓰, 와이셔츠, 넥타이, 포켓, 카우스' 등과 '라사, 스돗치, 홈스팡, 세무, 비로드' 등의 직물 명칭들이 '양복'과 관련된 남자의복 명칭들로서 외래어 명칭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화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남자의 복식이 여자의 복식에 비해 먼저 서구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근대 신문광고에 나타난 상품광고 유형을 보면, 모자 양산 등의 장신구는 1900년대 이전에는 3건, 1900년대는 47건, 1920년대는 140건, 1920년대는 223건, 1930년대는 118건이었고, 의류와 관련된 광고는 1900년대 5건, 1900년대 32건, 1910년대 16건, 1920년대 50 건, 1930년대 100건으로 장신구에 비해 의류광고는 그 수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³⁷⁾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의 복식은 의복보다는 장신구에서 부터 서구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신문 잡지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명칭을 통해 당시 복식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신문, 잡지에 기록된 복식명칭들은 고유어, 신조어, 외래어로 구분되는데, 고유어는 이전부터 사용된 '저고리, 치마, 바지, 자리옷, 두루마기, 갓, 신' 등의 한글 명칭과 '혜(鞋), 화(靴), 모자(帽子)' 등의 한자어 명칭들이 확인된다. 신조어로는 '양(洋)'과 결합한 한자어로 '양복(洋服), 양장(洋裝), 양말(洋襪), 양화(洋靴), 양혜(洋鞋)' 등의 명칭이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신조어들은 외국의 복식명칭을 통합하여 표기할 수 있는 의미가 넓은 명

<표 6> 용도와 사용자로 본 외래어 명칭

성별 용도	남자	여자
신	구두	구두
의복	푸로코트, 코-트, 모닝코우트, 쓰푸링 코-트, 레인코트, 바바리, 오버, 인바네스, 돛비, 콤비네숀-원피스, 쓰메에리, 세비로, 만또, 뽀스, 족구, 메리아스샤쓰, 와이셔츠, 넥타이, 포켓, 카우스, 쉐터, 파자마, 네마기, 기모노, 하가마, 시루시반넨, 사루마다	코-트, 오버, 스카트, 포켓, 카우스, 에푸론, 솔, 쉐터, 파자마, 네마기, 기모노, 에비자하가마, 하가마, 몸뻘
쓰개	셀크햇트, 파나마(모), 사포, 도리아치	본네토
기타	가방, 한케치프, 라사, 스돗치, 홈스팡, 세무, 비로드, 메리아스	가방, 한케치프, 핸드백, 리븐, 레쓰, 비로드, 메리아스

칭들로서, 개화기 초기부터 1910년대까지 많이 사용되었고, 양복, 양장, 양말, 양산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또한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유입된 많은 외래물품들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중산모, 중절모, 맥고모, 학생모, 변형화, 혁신화, 편리화, 경제화, 단화' 등 모자와 신발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외래어 복식 명칭들을 시기별로 보면, 제1기(1873-1910)는 남성복식과 관련된 품목의 외래어 명칭이 유입되어 사용되었으나 그 수가 적었다. 제2기(1910-1919)는 서구어계, 일본어계,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서구어계 명칭 등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와 함께 외래어 명칭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기로 남성의 복식품목과 관련된 명칭이 주를 이루었다. 제3기(1919-1937)는 여성복식과 관련된 명칭이 이전보다 많이 유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4기(1937-1945)는 일본의 새로운 복식이 우리복식에 침투된 시기로 국민복, 몸빼 등이 유입되어 입혀졌다.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외래어 명칭들을 어원별로 분류해보면 일본어계, 서구어계, 일본에서 유입된 서구어계 외래어로 구분된다. 일본어계 외래어는 '네마기, 기모노, 시루시반덴, 쓰메에리, 돗비, 사루마다, 도리아치, 에비자 하가마, 하가마, 구두(구쓰), 가방, 몸빼' 등으로 일본 전통복식과 관련된 명칭들이 많았다. 서구어계 외래어는 '푸로코트(후루코트, 후록코트, 프록코트), 코-트, 스카트, 켈크햇트, 파나마(모), 리쎌, 한케치프, 모닝코우트, 본네토, 넥타이, 사포, 스낫치, 흡스팡, 세무, 쓰푸링 코-트, 포켓, 핸드백, 슌, 파자마, 에푸론, 카우스, 콤비네순-원피스, 레인코트, 바마리' 등이 있다. 일본을 거쳐 유입되어 일본식 외래어 명칭에는 라사(らしゃ←rasa), 만토(マント←mantau), 세비로(せびろ←civil clothes), 족기(チョッキ←jaket), 메리야스샤쓰(メリヤスシャツ←medias: 스페인어+shirt), 오-바(オーバ←overcoat), 뽀스(パンツ←pants), 웨터(セーター←sweater), 샤쓰(シャツ←shirt), 와이셔츠(ワイシャツ←white shirt), 레-스(レース←lace), 비로드(ビロード←velvet)가 있다. 이상을 통해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외래어 명칭은 일제 강점 시기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일본어계나 일본을 통해 유입된 명칭과 서구어계로 크게 양분됨을 알 수 있다.

품목을 중심으로 본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외래어 명칭은 남자의 양복과 관련된 쓰개, 의복, 소재 등의 명칭이 많은 반면, 여자 복식과 관련된 각 품목별 외래어 명칭은 남자에 비해 그 수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자복식은 복식전반에 걸쳐 서구화가 진행되었고, 여자는 남자복식에 비해 서구화의 속도가 늦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외래어 명칭은 유입된 시기와 품목은 다르지만 일본 전통복식을 지칭하는 몇몇의 명칭을 제외하고는 이들 명칭의 대부분이 국어에 동화되어 현재 사용되는 복식명칭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복식은 서구화복식의 기반을 이루었고, 이는 일본에 의한 서구화 정책과 우리의 자발적인 서구화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개화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신문 잡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누락된 명칭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1) 한글학회 (1995).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p. 151. 개화기: 개항 때부터 대한제국이 망한 때까지의 시기.
- 2) 이정옥 (1973). *개화기 우리나라 복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송희 (1984).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윤정 (1995). *개화기 복식의 변천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지아 (2000). *개화기 한국복식의 변천-조선왕조 국말부터 1945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영희 (1987). *개화기 양복도입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미자 (1974). *개화기의 문관복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운 (1986). *개화기 남자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지연 (2001). *한국 개화기 남성복에 영향을 미친 일본, 서양복의 남성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남윤숙 (1990). *한국 현대 여성 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수경 (1990).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 서울: 일지사.
김선영 (1995). *개화기이후 여자한복 변천에 관한 연*

- 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1995). *개화기의 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1880~1945-*.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박영섭 (1994).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1, 2, 3*.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7)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3. 6, 자료출처 <http://www.kmpa.or.kr>
- 8) 신문박물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2. 25, 자료출처 <http://www.presseum.or.kr>
- 9) 이기문 감수 (1996).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p. 1519. 외국에서 빌려 마치 국어처럼 쓰는 단어. 남포·라디오·아파트 따위[한자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부터 빌려 쓰는 말을 이룸.]
- 10) 박영섭 (1997).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5(외래어편)*. 서울: 박이정, p. 11.
- 11) 신문박물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2. 25, 자료출처 <http://www.presseum.or.kr>
- 12)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3. 6, 자료출처 <http://www.kmpa.or.kr>
- 13) 매일신보(1998). *매일신보 권 4*. 경인문화사, 1912년 11월 27일 1면.
- 14) *위의 책*. 경인문화사, 1913년 1월 24일 1면.
- 15) *위의 책*. 경인문화사, 1912년 12월 21일 1면.
- 16) 경인문화사 (1998). *매일신보 권 10*, 1916년 11월 26일, 3면.
- 17) 경인문화사 (1998). *매일신보 권 15*, 1919년 10월 12일 1면.
- 18) 경인문화사 (1998). *매일신보 권 11*, 1917년 4월 3일 1면.
- 19) 신문박물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2. 25, 자료출처 <http://www.presseum.or.kr>
- 20) 배양서 (1976). *한국외래어사전*. 서울: 탑출판사, p. 270. チョッキ: 일본어←jaket: 영어←jack: 네덜란드어
- 21) 조선총독부편 (1920). *조선어사전*. 조선총독부, p. 583.
- 22) *위의 책*, p. 583.
- 23)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3. 6, 자료출처 <http://www.kmpa.or.kr>
- 24)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3. 6, 자료출처 <http://www.kmpa.or.kr>
- 25) 경인문화사 (1998). *매일신보 권 17*, 1921년 2월 11일 3면.
- 26) 신문박물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2. 25, 자료출처 <http://www.presseum.or.kr>
- 27) 신문박물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2. 25, 자료출처 <http://www.presseum.or.kr>
- 28) 배양서. *앞의 책*, p. 25.
- 29)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 자료검색일 2009. 3. 6, 자료출처 <http://www.kmpa.or.kr>
- 30) 신문박물관. 촬영일시 2009. 8. 20
- 31) 고부자 (2001). *우리생활 100년: 옷*. 현암사, p. 165. 재인용.
- 32) *위의 책*, p. 104.
- 33) 배양서. *앞의 책*, p. 87.
- 34) 패션전문자료사전 편찬위원회 (1997). *FASHION 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p. 352.
- 35) *위의 책*, p. 352.
- 36) 문세영 (1946).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 발행자불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p. 11.
- 37) 국사편찬위원회편 (2007). *광고, 시대를 읽다*. 서울: 두산동아, p. 147.